

[바둑]

‘응씨배 우승’ 최철한 인터뷰



지난달 25일 타이베이 화련현 메이린 호텔 2층에서 열린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시상식에서 최철한 9단이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제 2전성기 보여줄게요”

이창호에 3-1 역전 우승

3년 넘은 긴 슬럼프 탈출

5억4천만원의 사상 최고 상금이 걸린 응씨배에서 최철한이 조현현-서봉수-유창학-이창호의 한국 우승자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

최철한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승 5번기 4국에서 이창호 9단을 184수 끝에 백불계로 물리치며 종합전적 3-1로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국을 평가하면.

▲마지막 경기는 좋은 실수를 되풀이 했다. 이창호 9단이 흑 133의 실수를 범하면서 내가 우변에서 살아나 형세가 좋아졌다.

-상대인 이창호 9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창호 9단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종반에 실수를 범한 것 같다. 이전에 내가 대면에서 종합배 우승경력이 있는데 이번 결승전이 대면에서 열려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됐다.

-세계대회 우승 소감은.

▲4년전 응씨배에서 장하오 9

단에 졌다. 그 이후 나는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꿈을 이룬 느낌이다.

-대회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덱8점은 약간 백에게 유리한 것 같다. 하지만 최종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실력이다. 규칙 면에서는 나는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응씨배’는 벌점을 받거나 중요한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아주 좋은 점이다.

-응씨배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지난 응씨배 때 우승을 놓치고 나서 나는 슬럼프에 빠졌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해 다시 한번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엔 잘 뒤쳐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번 우승은 내 바둑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이번 응씨배 우승은 내 바둑인생에서 최고 절정으로 이후 바둑을 두어 나가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오 제공>

신안태평천일염 “이세돌 없어도 출전”

한국바둑리그 7개팀 체제로 출범 6일 선수 선발, 13일 개막식 가져

신안군이 이세돌 9단의 리그 불참 선언과 상관없이 팀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국 위기에 몰렸던 올해 2009 바둑리그가 정상화됐다.

이세돌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전제로 팀을 창단했던 신안군청 박우람 군수가 최근 한국기원 관계자와 만나 “연고지 스타 없이 출전할 것인가를 놓고 매우 고심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바둑리그는 타이틀 스폰서 국민은행, 신안태평천일염을 포함한 총 7개 팀 리그단 당초 체제로 치러진다. 예선전은 무려 세 차례나 연기되는 소동 끝에 30일로 최종 조립됐다. 13일 개막식은 6일, 개막식은 13일.

개막을 앞두고 한창 막바지 준비 작업 중인 바둑리그에 뜻밖에도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랭킹 1위 이세돌이 지난 달 20일 오후 한국기원 기전팀에 전화로 “개인 사정 때문에 바둑리그에 출

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사실 이세돌의 선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국료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란 추측하고 있다.

1승을 거둘 경우 150만원(주장으로 출전할 경우 50만원 추가)을 받게 되고 패할 경우 50만원을 받게 되는 한국바둑리그와 비교해 대국료가 훨씬 더 큰 중급조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란 견해다.

총 14라운드를 뛰게 되는 2009 시즌에서 이세돌은 주장으로 전승을 거두더라도 2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위연화의 가치상승으로 중급조리기에 1승에 10만원(현 환율 기준 약1천800만원)을 받고 있는 이세돌로서 2판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다.

올 리그 참여를 위해 최근 팀을 창단한 신안팀은 이세돌을 반드시 주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그동안 무척 공을 들였다. 다른 팀들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드래프트 1번을 신

안팀에 양보하는 등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세돌의 불참으로 신안팀은 항도 프로기사를 영입해 흥행몰이를 하겠다던 계획은 차질을 빚었지만, 국내 바둑 활성화 등을 위해 리그 참여를 선언했다.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2억원, 준우승 1억원, 3위 5천만원, 4위 2천만원이다. 시즌이 종료되면 패자에서 MVP 500만원, 신인상 200만원, 감투상 20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각팀의 감독과 보호·차출지명 선수는 다음과 같다.

◇감독=신안태평천일염 이홍열, 하이트진로 강훈, 영남일보 최규병, Kixx 양재호, 티브로드 서봉수, 바투 김영환, 한게임 차민수.

◇보호선수=▲영남일보 김지석(4월랭킹 18위), 김형우(24위) ▲티브로드 조한승(9위), 안조영(17위) ▲한게임 이영구(11위), 홍성지(19위) ▲Kixx 이창호(3위)

◇차출지명=한게임 한은규, 바투 김승재(40위), 티브로드 최병훈(27위), kixx 고근태(26위), 영남일보 유창혁(34위), 하이트진로 안성준, 신안태평천일염 안영준.

/신안=조완기자 wncho@



신안팀의 리그 참여 선언으로 2009 바둑리그에 7개 팀이 뛰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2007 바둑리그 부대행사로 열린 프로기사들의 지도대면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명지대 정수현 교수 ‘바둑 읽는 CEO’ 출간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정수현(9단) 교수가 ‘바둑 읽는 CEO’를 출간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관세를 읽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바둑의 지혜를 통해 미래 예측 기술을 배운다고 주장했다.

바둑은 흔히 ‘인생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열아홉 줄 반상 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둑은 단지 이기고 지는 승부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의 기술이 담겨 있는 ‘사교의 예술’이자, 미래를 읽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구라고 전한다.

한편 정수현은 지난 1973년 프로기



사에 입단한 후, 1997년 프로 9단에 올랐다. 한국프로기사협회 회장, 한국바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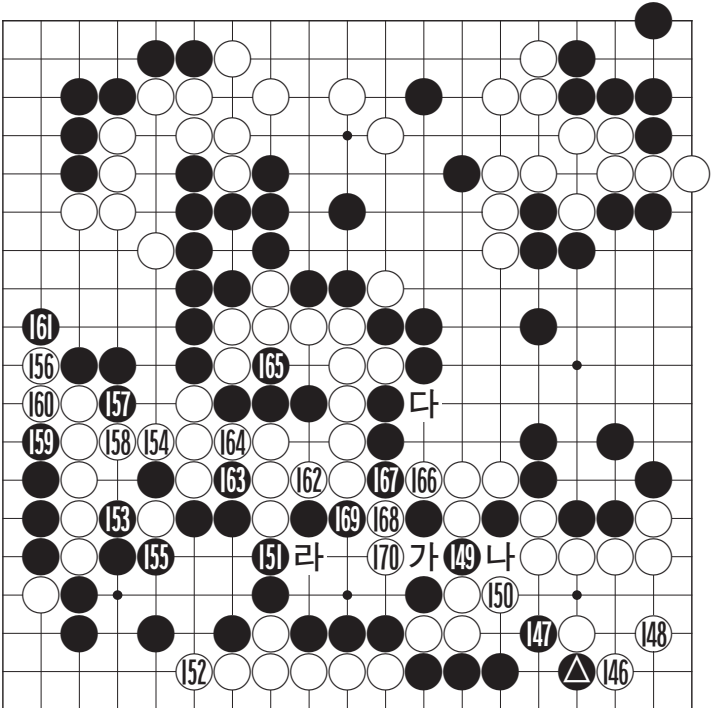
저서로는 ‘반상의 파노라마’ ‘현대바둑의 이해’ 등 30여 권이 있다. <21세기뉴스> 1만3천 원 <오광기자 kroh@

광주지역 연구생 리그전

‘준비해 둔 묘수’

1국 8분(146~170)

白 임지성 5단 黑 국승찬 5단 <동일전자정보3> <문성고3>



국승찬군은 얼굴이 상기된채 안개속을 헤메고 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중앙의 거대한 백 대마를 노리는 것. 그러나 ‘대마는 불사’라 직접 공격은 힘들다고 보고 상대의 방심도 유도하고 외곽도 분쇄할 겸 흑 ▲로 불려 교란작전을 펼치고 있다.

흑 149 때 백 150으로 후퇴한 것은 정수인데 다음 흑 151로 둔 수가 세밀하지 못한 실수였다. 이 수로 먼저 ‘가’에 두어 백이 ‘나’에 잇도록 해야 했다. 물론 백은 ‘나’에 방지않을 수도 있으나 실전 심리상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또 자체로 큰 곳이기도 하다.

만약 백이 받아준다면 나중에 백 대마가 공격을 받을 때 170에 늘어

살아가는 수가 없어서 대역전도 가능했으며 흑이 선수로 백 석점을 잡으면 계가가 된다.

임지성군은 중앙 백 대마에 대한 수읽기가 끝났는지 백 152에 늘여 승리를 확인하는 눈치며 국승찬군도 대마공격에 최후의 희망을 걸고 있다.

흑 153부터 163까지는 정확한 수순이며 흑 165도 생각할 수 없다. 이곳을 백이 두면 꼭4공으로 빅이다.

백 166이 임지성이 준비해둔 수였다. 다음 170으로 가만히 는 수가 묘수로 ‘다’와 ‘라’를 맞보아 대마가 살아버렸다. 흑의 희망이 날아간 순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中 왕야오 6단 생애 첫 우승

이광배 저우허양 꺾어

중국랭킹 14위인 왕야오 6단 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왕야오는 지난달 22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9기 중국 이광배 결승전에서 저우허양에게 122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저우허양은 본선에서 왕이중 7단, 덩웨이 9단, 저우우이양 5단

등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으며, 왕야오는 구리 9단, 롱지에 7단, 신위에 4단 등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광배는 창하오 9단(1, 4회), 구리 9단(2회), 씨에허 7단(5회), 왕시 9단(6회), 후야오위 8단(7회), 롱지에 7단(3회), 치위런 8단(8회) 등이 우승을 차지한 중국 유명 대회이다. <오광기자 kroh@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Includes a table of real estate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icipating schools.

투자자모심. Lists investment services such as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and '최소 5,000만 이상 투자가능'.

경찰 메가경찰학원. Promotes a '6개월 과정' (6-month course) for becoming a '경찰' (surveying) expert, including details on fees and curriculum.